

## 독일 주택단지 생활과 거주 의 일상

—거주의 안과 밖—

호교 하카루 (法橋量)

번역 : 김현정

### 들어가는 말—고층집합주택의 일상—

민속학이 동시대의 일상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거주와 생활방식은 가장 큰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거주’ 혹은 ‘생활’ 이라는 개념은 그 애매함 이상으로 지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아우르는 일상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속학자들은 주거라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 생활영역에 접근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2014년에 일본 민속학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당연"한 것을 묻다!—한중일 고층집합주택에서의 생활과 생활세계—」에서 서구 근대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주거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층집합주택”이라는 주거의 형태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 까닭은 상이한 사회에 존재하는 각각의 ‘당연’ = ‘일상’을 묻는 동시에 민속학의 방법을 재고하기 위함에 있었다 [岩本 2014:1].

이 글에서는 상기 심포지엄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현대독일에서 고층집합주택 혹은 주택단지가 ‘거주’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그러한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쓰여져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주거 내부(안), 그리고 외부(밖)로부터 주거를 둘러싸며 일상을 구체화하는 커뮤니티 (community) 생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거주 의 일상을 들여다 보겠다.

### 1. 단지의 일상—바인가르텐의 생활—

먼저 필자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 교외의 고층집합주택단지에서 1997년부터 98년까지 1년 동안 살았던 임대주택에서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해보겠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 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교외에 대형 집합주택단지인 바인가르텐 (Weingarten) 지구가 있다. 22층 높이의 이른바 고층주택 (Hochhäuser)을 포함하는 바인가르텐은 현재 약 2,000 세대의 가족용 주택에 약 1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내 최대 지역이다 [Amt für Bürgerservice und Informationsverarbeitung der Stadt Freiburg im Breisgau 2014:19]. 22층 고층주택을 낀 이곳 주택단지는 시 중심부의 인구증가에 대처하고자 1964년에 착공하여 74년에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당시로서는 근대적인 신시가지의 탄생을 의미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쇼프슬린데 (Bischofslinde), 란트바췌 (Landwasser) 등의 새로운 단지가 프라이부르크 시에

조성되었지만, 특히 바인가르텐 지구는 지금까지도 커뮤니티로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레토르트” [Scherfling 1994:61], “사회적 핫 스팟” [Huber-Sheik 1996], “프라이부르크의 브 롱 크 스 ” [http://www.newsplay.de/video/badische-zeitung/Baden-Wuerttemberg/Vermischtes/video-Umfrage-Was-verbindet-ihr-mit-Weingarten-Freiburg-Assoziation-Stadtteil-Image-417515.html, 2016/02/18] 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바인가르텐 거리를 다닐 때에는 지갑을 조심해라”,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최하위 수준” 과 같은 악평을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이다.

바인가르텐은 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뻗는 오프펑거 (Opfänger) 도로에 접해 있는 22 층형 고층주택을 포함하여 8 층형 가족용 임대주택, 2 세대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건축물 자체는 높이나 크기 등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거주동 사이에는 충분히 넓은 녹지를 두어 건물의 밀집을 방지하였고 북쪽 지구에는 너른 부지면적을 확보한 디텐바하 공원 (Dietenbachpark) 과 개울도 조성되어 있어서 환경적인 배려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교회, 초·중학교 등의 공공시설도 정비되어 있다. 특히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는 병원, 빵집, 음식점, 서점 등의 점포뿐만 아니라 약국 및 마트가 입점한 쇼핑센터 등의 상업시설<sup>1</sup> 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불편할 일은 없다. 이 쇼핑센터 앞 광장에는 매주 수·토요일마다 장이 섰고 근교의 농가에서 재배된 야채나 고기 등의 신선식품, 빵집, 치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신선한 식료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통근하거나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사러 나갈 때 이용하는 공공교통의 경우,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시 전동차가 1994 년에 개통하였고 남쪽에는 버스 노선이 마련되어 있어서 약 15 분 정도면 시 중심지에 다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단지 내 주거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직접 살았던 지구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거주동의 내부를 예로 들어 보겠다. 1968 년에 시공된 이 건물은 8 층이며 176 세대의 가족용 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필자가 1997 년부터 1 년간 거주한 곳은 전형적인 가족용 세대로 「2 개 방 + 주방 + 욕실」 구조이다 (그림 1).



그림1 바인가르텐의 전형적인 2개 방 주거공간의 구조  
(holz부동산 광고지에서 인용: www.holz-immobilien.de)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바닥면적 50㎡의 발코니 달린 1LDK(1 개방+ Living + Dining + Kitchen) 형태이며 지하의 창고공간이 각 세대당 1 실씩 주어진다. 실내는 거실 (Wohnzimmer), 침실, 주방, 화장실을 겸비한 욕실, 다용도실 (Abstellungskammer) 로 구성된다 (그림 1). 이 집은 시외에 사는 소유자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얻은 곳이었는데, 가구, 주방용품 등은 미리 구비되어 있다. 먼저 거실에는 4인용 식탁, 소파, 거실용 테이블, 식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찬장·수납장, 창가 책상이 있고 타일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다. 벽면에는 복제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겸용 오디오카세트가 있다. 옆 침실에는 더블베드와 대형 옷장, 바닥에는 물론 카페트가 깔려 있다. 이 외에도 주방에는 조리기구인 전기콘로와 전기오븐 외에 냄비,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청소기도 있다.

난방시설은 중앙난방식 스팀 난방기가 거실, 침실, 욕실에 설치되어 있다. 세탁기는 세대 내에 상비되어 있지 않고 건물 최상층에 건조기가 달린 동전식 세탁기 6대를 갖춘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다. 상주하는 관리인 (하우스 마이스터) 으로부터 매주 한 번씩 전용 동전을 구입하여 예약제로 사용 (동전 1 개로 약 1 번 이용) 하게 된다. 이러한 가구·비품류는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특히 단기체류형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독일 주택의 1인당 평균 바닥면적이 1990 년대에 35㎡였음을 고려하면 (2010년에는 43㎡로 증가 [Hart & Scheller 2012:51]) 결코 여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식사, 수면, 휴식,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바인가르텐의 이 주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대형 집합주택단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같은 층 주민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제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생활함에 있어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또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건물임에도 눈에 띄는 노후화나 손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 2. 내부의 일상과 외부의 일상

그렇다면 어째서 이곳 바인가르텐 지구 (그림 2) 는 문제 있는 곳으로 불리우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주택건축이나 도시계획 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구성에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인가르텐은 시 중심부로부터 팽창한 인구를 수용하는 곳으로 프라이부르크 단지공사 (현 프라이부르크 시 건설공사) 가 이른바 사회주택 (Soziale Wohnung)<sup>2</sup> 으로 건설하였다. 즉 이곳의 개발 배경에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폭넓은 계층에 주거를 공급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 입주자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외국인, 신티 (Sinti, 집시) 계층도 많이 포함되었다. 또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이른바 ‘아우씨들러’ (Aussiedler) 라 불리는 러시아나 동구권으로부터의 구 식민자들이 고향을 떠나 전입해왔을 뿐만 아니라 발칸 전쟁으로 인해 구 유고슬로비아로부터의 난민도 수용하게 되어 비독일계 주민의 비율은 높아졌다.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민자의 비율은 50% 전후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실업자 비율도 20% 를 넘는 수준이 되었는데 이는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 실업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해 현저한 수치다. 게다가 최근에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까지 20%를 넘어서면서 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Forum Weingarten 2015:4-8].

이렇게 60 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공생하고 [Scherfling 1994:62], 사회적 약자의 비율 또한 높은 이 지구의 특수한 지역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에스닉 집단의 젊은이들끼리 떼지어 다니거나 공공질서의식이 결여된 모습 등이 공론화되는 일은 적지 않다. 새롭게 조성된 고층집합주택단지이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민집단과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는 사회도시 (Soziale Stadt)<sup>3</sup> 라는 점이 “레토르트” 또는 “프라이부르크의 브롱크스”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인 것이다.

가장 다양한 주민층으로 구성된 바인가르텐 지구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로서의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카톨릭계 성 안드레아스 교회교구, 프로테스탄트계 디트리히 본회퍼 교구 (Dietrich Bonhoeffer Gemeinde) 등의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클럽, 원예동호회, 사진동호회와 같은 취미 모임, 파스네프트 (카니발) 모임처럼 전통적인 축제에 참가하는 교회조직도 있다 [Bürgerverein Freiburg 1978]. 이러한 주민들의 모임과 함께 시민협회와 같은 자치회 조직, 포럼 2000(1985년에 설립, 현재 Forum Weingarten 으로 명칭 변경) 과 같은 사회복지사 NPO 도 있다. 이들은 지역만들기를 주도하거나 성 니콜라스 등과 같은 전통행사와 시민축제 등을 주최하여 커뮤니티의 연대를 촉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바인가르텐의 이른바 공공적인 일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거주자의 복합체인 커뮤니티 연구에 속하게 된다. 환언하자면 이러한 연구영역은 외적 거주의 일상연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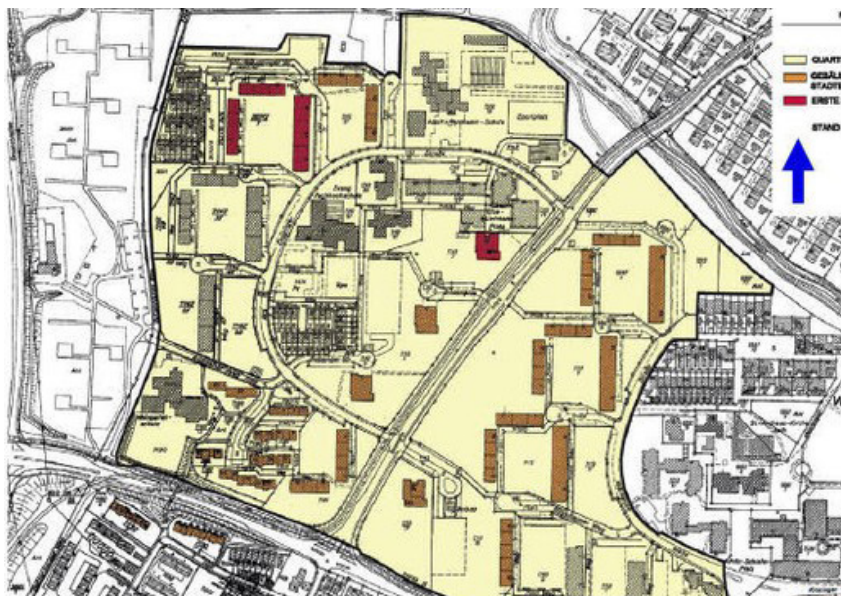


그림2 바인가르텐 지구 도시계획도(열은 색이 칠해진 부분이 서쪽 지구)

(<http://www.eneff-stadt.info/en/slideshow/bilder/model-city-district-refurbishment-weingarten-west-freiburg/weingarten02-site-plan//projekte/>)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사회계층, 국적, 연령, 가족구성을 포함하는 바인가르텐에서의 생활이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1LDK 구조의 거주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집합주택단지 건축으로 규격화된 거주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거주’ 라는 거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상을 묻는 일이 이러한 다양한 출신,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각각의 거주 일상을 묻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내적 일상을 묻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 3. 민속학과 일상사의 ‘거주’ 연구

‘거주’ 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집은 비바람을 피하고 외부의 적을 막고 자손을 낳아 기르기 위한 안전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물질적 설비이다. 또 집은 먹고 마시고 의사소통하며 일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가족생활의 사회적인 장소이자 생계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적 영위가 ‘거주’ 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응용주거 연구자인 플라데 (Antje Flade) 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교차되는 행동을 포함하는 사람과 환경의 밀접한 관계이면서 이 관계를 통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관계를 조직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스스로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거주’ ” [Flade 1987:16] ([Harth & Scheller 2012:7] 에서 인용)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거주’ 의 일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민속학의 주생활 연구이며 일상사 연구였다. 이른바 농촌지역 농가 (Bauernhaus) 의 생활에서 주로 물질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거주’ 생활보다 주거 연구에 집중해온 학문이 민속학이었던 반면 19세기 도시노동자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은 사회사, 특히 일상사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은 어떤 주거공간 속에서 어떠한 일상을 보내왔는가” 에 대해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

민속학의 농가 연구는 민속지도 작성을 담당한 본 대학과 뮌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주거의 건축적 특징이나 가장집물 등의 물질적 측면과 이러한 물질문화의 지리적 분포, 이노베이션 센터 (기술혁신의 발상지) 의 특징, 거주공간, 가구의 통시적 변천 연구에 있었다.<sup>4</sup>

한편 일상사 분야에서는 특히 1980년대에 노동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가 널리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한스 위르겐 토이트베르그 (Hans Jürgen Teuteberg) 는 민속학의 성과도 수용하면서 사회사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지던 노동자 계급의 주생활 문화에 대한 역사기술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토이트베르그는 주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주’ 를 둘러싼 물질적·사회적·문화적 연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상화하기 위하여 거시적 개념틀인 ‘사회적 주거성’ 을 제시하였다 [Teuteberg 1985:3]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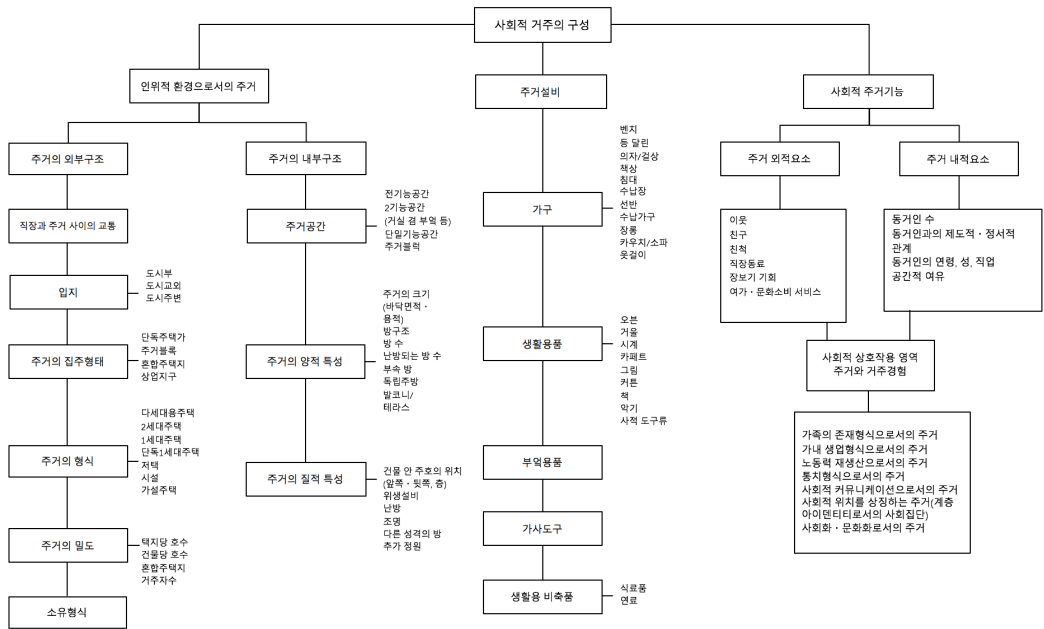


그림3 토이트베르그의「사회적 거주의 구성」

[Teuteberg, H. J. 1985:3]

먼저 사회적 거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위적 환경으로서의 주거”, 둘째는 “주거설비”, 셋째는 “사회적 주거기능”이다. 인위적 환경으로서의 주거는 다시 “주거의 외부구조”와 “주거의 내부구조”로 나뉜다. 외부구조에는 “직장과 주거 사이의 교통”, 주거의 “입지(도시부, 교외, 도시주변)”, “주거의 집주형태(단독주택, 주거블록, 혼합주택지, 상업지구)”, “주거의 형식(다세대주택, 2세대주택, 1세대주택, 단독1세대주택, 별장, 시설, 긴급피난소)”, “주거의 밀도(택지당 호수, 건물당 호수, 입주자수)”, “소유형식”이 있다.

이러한 외부구조에 대해 내부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거공간(전기능공간, 2기능공간[거실 겸 부엌 등], 단일기능공간)”, “주거의 양적 특성(방구조, 방 수, 난방되는 방, 부속 방, 독립주방, 발코니/테라스)”, “주거의 질적 특성(건물 안 주호의 위치, 위생설비, 난방, 조명, 기타 실내설비, 정원)”이다.

다음으로 주거설비는 이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구일체(벤치, 의자·결상, 책상, 침대, 궤, 선반, 장롱, 카우치·소파, 옷걸이)”, “가정용품(오븐, 거울, 시계, 카페트, 그림, 커튼, 악기, 개인적 비품)”, “부엌용품”, “가사도구”, “생활용 비축품(식료품, 연료)”이다.

이상 두 가지가 주생활에 관한 물질적 측면이었다면 세 번째 측면은 사회적인 주거기능이다.

사회적 주거기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주거의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이다.

주거의 외적요소로는 동네·이웃사람, 친구, 친척, 직장동료, 장보기의 가능성, 여가·문화소비 서비스가 있다.

주거의 내적요소는 동거인의 수, 동거인과의 제도적·정서적 관계, 동거인의 연령·성별·직업, 주거공간의 여유이다.

이 외적·내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영역은 ‘주거’와 ‘거주경험’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가족의 존재형식으로서의 주거, 가정내 생업형식으로서의 주거, 노동력 재생산으로서의 주거, 통치형식으로서의 주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주거,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주거(사회적 집단·계층의 아이덴티티 확립), 사회화·문화화로서의 주거이다.

이러한 토이트베르그의 도식은 ‘거주’가 단순히 물질적 조건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집이라는 구조화된 공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시점을 제공해준다. ‘거주’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이트베르그의 도식 또한 20세기,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거주’문화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특히 이 글의 검토대상인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집합주택단지, 기술적·사회적으로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현대사회의 ‘거주’에 대해서는 주택·생활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와 주거역할의 변화 등 보다 많은 요소를 추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4. 질버만의 『독일인의 거주』

‘거주’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전후 부흥을 통해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독일에서 도시인구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획·건설된 대규모 집합주택·단지에서의 주생활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 [Teuteberg 1985:17]. 쾰른대학교의 르네 쾰니히(René König), 엘리자베트 파일(Elisabeth Pfeil) 등의 사회학자들이 주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인의 거주』(1963)를 쓴 알폰스 질버만(Alphons Silbermann)의 연구는 이후 ‘거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질버만의 연구는 당시 서독의 제2차세계대전 중에 피멸적인 피해를 입은 쾰른 시 도시부, 쾰른 시에서 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1만명 정도의 소도시 베르크노이슈타트(Bergneustadt)에서 1961년부터 62년까지 EMNID 여론·사회연구소(Institut für Meinungsforschung und Sozialforschung der EMNID)의 위탁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사는 무작위추출된 주민(쾰른 1,088명, 베르크노이슈타트 51명)에 대한 질문지·인터뷰 조사와 주택잡지, 가구상품의 팸플릿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이 ‘거주’에 대한 경험적 사회연구는 민속학이나 건축사 연구에서 중시되었던 가옥, 실내장식·가구 등의 물질적 측면보다도 물질문화에 수반된 행동으로서의 ‘거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일상사 연구에서 자전이나 신문기사, 에세이 등의 자료로부터 수집하려 했던 거주자의 일상에 대해 생활주체가 직접 보충설명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질버만의 ‘거주’ 일상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거주경험’(Wohnerlebnis)이다. ‘거주’라는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인간행동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거주경험’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질버만은 설명한다. “거주경험만이 작용권(作用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동적이며 사회적일 수 있다. 거주경험만이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사실로서 ‘거주의 사회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이 될 수 있다” [Silbermann 1963:15]. ‘거주’에 대해 주택의 외적 조건이나 내부장식·가구 등의 물질적 측면을 기술·기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일상에 다가갈 수 없다. 질버만이 지적하듯이 ‘거주경험’이 “특정 공간에서의 사회적·감정적 영역이자 기쁨, 동의, 부정, 주장, 대립 등의 사회적·감정적 상황을 낳는” [Silbermann 1963:15]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 속에서 자연히 표출되는 심리적·사회적 사실과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거주’의 실질적 의미를 규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질버만이 분석한 질문지는 우선 응답자의 기초정보에서 시작하여 약 20 항목에 이른다. 이러한 다양한 질문항목을 통해 추출된 ‘거주경험’을 7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1. 주거입지, 2. 주거의 표준, 3. 거실가구의 내력, 4. 거실가구의 모델상, 5. 부모의 주거와 지인의 거실과 비교, 6. 여가시간의 주행동, 7. 주문화. 여기서 주문화는 a) 기호, b) 유행, c) 색조, d) 문화와 개성이라는 요소로 분류되었다.<sup>5</sup>

그렇다면 이른바 경험적 사회연구의 색채가 농후한 정량적 자료에 나타나는 1960년 초 독일에서의 거주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질버만의 분석적 특징은 반드시 ‘내적’, ‘외적’이라 명명되어진 두 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내적 시점이란 “무엇을 통해 거주경험은 정해지는가”를, 외적 시점이란 “무엇을 통해 거주경험은 사회적인 것이 되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상호작용하면서도 상반되는 관계에도 있는 복합적인 것이다 [Silbermann 1963:27].

질버만이 먼저 거주경험으로서 분석대상화한 것은 ‘거주의 표준(스탠다드)’이다. 대도시, 소도시의 주민에게 표준적인 ‘거주’란 무엇인지를 질문지·인터뷰 조사를 통해 본인소유의 집·임대의 구별, 주호면적, 주호형식, 방 개수, 방 기능, 가구·가재 종류, 세대구성, 사회계급, 연령구성 등의 통계데이터를 이용해 규명해갔다(표 1·2). 일인당 바닥면적 등이 가족구성이나 사회계급에 따라 다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면접자에 의한 조사대상 세대에 대한 평가자료이다.

예를 들어 쾰른과 베르크노이슈타트에서 자신의 주거에 대한 현재상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주거공간 내 상태에 대해 두 도시 모두 청결함, 정리정돈 등<sup>6</sup> 80% 이상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표 3·4). 면접자의 가치판단을 포함한 상대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가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실의 모습은 거주자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 속에 포함된 체험일 수도 있고 혹은 군대에서 질서 잡힌 영사의 체험과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청결이 유지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상태는 내적 시점에서 말하자면 거주경험을 결정짓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료의 배경에는 조사 당시에 급속히 보급된 전기청소기,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 서비스 카트, 수납가구 등 주거환경의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물질적 기술발전 또한 거주경험을 규정하는 요소인 것이다 [Silbermann 1963:28].

한편 거주경험을 외부로부터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질버만에 따르면 그것은 건축가 집단이다. 건축관련문헌 중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3가지 주요



관 점 - 공 동 체 · 가 족 · 주 거 공 간 의 넓 이 -, 즉 긴 밀 한 가 족 생 활 의 영 위 를 배 려 하 여 건축 가 가 이 3 가 지 관 점 에 기 초 해 설 계 한 주 거 의 모 습 이 거 주 경 험 을 미 리 규 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Silbermann 1963:29].

표 1 주거 형태 (%)

	퀵른	베르크노이슈타트
저택 (Villa)	1	2
1 ~ 2 세대 주택	14	51
3 ~ 5 세대 임대주택	26	25
6 ~ 10 세대 임대주택	44	12
11 세대 이상 임대주택	1	2
아파트	9	4
기타 주택	2	2
농가	1	-
가설주택		

퀵른 1,088 명 / 베르크노이슈타트 51 명 [Silbermann 1963:159]

표 2 주거의 방 개수 (%)

	퀵른	베르크노이슈타트
1	4	2
2	22	16
3	43	29
4	19	41
5	8	10
6 ~	4	2

퀵른 1,088 명 / 베르크노이슈타트 51 명 [Silbermann 1963:161]

표 3 주거의 청결성 (%)

	퀵른	베르크노이슈타트
청결	87	88
불결	11	12
무응답	2	-

퀵른 1,088 명 / 베르크노이슈타트 51 명 [Silbermann 1963:165]

표 4 주거의 정리정돈 (%)

	퀵른	베르크노이슈타트
정리정돈되어 있음	75	88
어지러져 있음	24	12
무응답	1	-

퀵른 1,088 명 / 베르크노이슈타트 51 명 [Silbermann 1963:166]

## 5. 거주 경험의 변용

질버만의 ‘거주경험’ 을 통해 독일인의 주생활을 밝히고자 했던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첫 조사로부터 약 33 년이 지난 1991 년에는 『신 독일인의 거주』 (Neues vom Wohnen der Deutschen), 93 년에는 구 동독을 다룬 『동독 독일의 거주경험』 (Das Wohnerlebnis in Ostdeutschland) 이 발표되었다. 또 질버만 연구에 이어 하스와 쉴러는 같은 시점 및 방법을 가지고 정점관측적으로 질버만 연구 이후 약 20 년이 지난 독일인의 거주는 어떠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독일의 거주경험-20 년후의 반복연구-』 (Das Wohnerlebnis in Deutschland.Eine Wiederholungsstudie nach 20 Jahren, 2012).

위와 같이 거의 60 년에 이르는 지속적인 연구는 독일인의 ‘거주경험’ 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부족이 겨우 개선되기 시작한 1960 년대 초와 그 30 년 후의 거주경험에서 드러난 현저한 변화의 하나로 주택, 인테리어, 가구 등의 선택에서 경제적=합리적인 태도가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Harth & Scheller 2012:17]. 즉 사람들이 가구, 가재를 구입할 때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가격이며 가구의 질이나 미적 가치보다도 먼저 가격이 우선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주거 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균형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Harth & Scheller 2012:17].

주택의 중심인 거실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공간인 동시에 손님을 맞이하고 그 집의 문화를 표상하는 공공적인 공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60 년대 초에는 이른바 ‘좋은 방’ (Stube)<sup>7</sup> 이어야 했던 거실이 외부 세계에 대한 표상 공간이라기보다 거주자가 쉬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보다 사적인 공간으로 변하였다.<sup>8</sup> 그리고 80 년대 말 거주지의 현실이었던 [Harth & Scheller 2012:17] 인테리어의 선택은 이전의 시민적 전통과 연결되었던 취미의 질, 또는 전통적 농가의 슈투베(거실)의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하는 개성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그로부터 20 년이 더 지난 후, 하스와 쉴러의 지속적 연구에서는 더욱 현저한 거주경험의 변용이 드러났다. 독일사회의 변화에 따른 뚜렷한 주환경의 변화로는 다원화(Pluralisierung), 개인화(Individualisierung), 심미화(Ästhetisierung),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초역(超境) 관계를 들 수 있다 [Harth & Scheller 2012:17].

이러한 거주경험의 변화는 물론 독일사회 자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80 년대 말 질버만이 세대(가정)의 모습은 건축형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인식한 데 반해 하스와 쉴러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다양해진 21 세기 독일사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와 세대의 배분 상의 변화가 세대 생활의 모습을 규정짓는다고 분석하였다 [Harth & Scheller 2012:165]. 예를 들자면 「3 개 방+주방+욕실」 구조의 표준적인 주거는 90 년대 초까지 가족을 위한 전형적인 주거형식이었지만 지금은 독신, 외부모가정, 이민자들의 대가족, 또 고령자용으로 개축된 웨어 하우스(WG)<sup>9</sup> 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부부와 2 인 자녀라는 표준적 가족을 위해 설계된 주거의 거주방식은 다양한 입주자들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거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과거 질버만이 지적했던 ‘바람직한 과거의 모델’ 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거는 개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곳이고 세대 내에서도 각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방 안에서 개개의 방식과 거주행동을 통해 개인화(개별화)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다양화·개별화는 전통적 규범에 따른 ‘바람직한’ 거주보다는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며 점점 더 세분화해가고, 물질적 가치의 과시보다는 상징적·문화적 차별화로 향하고 있다 [Harth & Scheller 2012:165]. 민속학자인 빌트파이어(Bianca Wildfeuer)는 질버만이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주문화의 양식과 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 ‘낭만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거주 의 일상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낭만성에 대한 해석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미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생활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의 사적 공간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거나 미디어와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거주공간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거주공간의 일상을 스스로 구축해가는—비록 ‘낭만적’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개념이라 할지라도—사적 영역의 생활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Wildfeuer 2012].

하스와 쉴러에 의하면 거주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학적 거주 연구이고 문화학적 연구에서는 특정 주거나 내부장식이 사회적 이상형의 표현 또는 귀결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Harth & Scheller 2012:7]. 빌트파이어는 낭만이라는 개념을 통해 거주란 무엇인지를 검토했는데, 종래 독일민속학에서의 거주 일상에 관한 연구는 이상적인 거주 의 상(像)이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주생활 문화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트랭클레의 연구는 거주 모델이 가족형태의 변화나 전통을 참조하는 것 이상으로 외부로부터의 정보—대중매체나 주택·인테리어산업, 가전산업이 발신하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Tränkle 1999].

질버만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초 독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에 집중되었던 사람들은 ‘거주’에 대한 욕구를 길게 표현하였다. 「어떻게 잘 거주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건축가, 도시계획가, 주택행정, 기타 전문가들이 보다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모색하고 도시·주택을 설계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대규모 집합주택단지이다.<sup>10</sup>

각각의 주택환경은 바닥면적의 확대, 방 수의 증가, 인테리어 선택의 다양화, 주택설비의 기술적 발전 등을 통해 분명 향상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거주 의 일상에서 보다 현저히 나타난 것은 토이트베르그의 도식에서도 지적되었던 주거의 표상적인 측면, 주민의 시선에서 보자면 스스로의 거주공간을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 어떻게 표현해가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가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11</sup>

## 결론—거주 연구와 커뮤니티 연구를 잇는 것—

하스와 쉴러의 연구는 토이트베르그의 도식에서 말하는 주거의 내부구조, 즉 주거 안쪽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거주공간 안을 아무리 개성화·개별화하더라도 스스로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인가르텐은 조성 직후부터 여러 이유로 인해 전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sup>12</sup> 이는 거주를 둘러싼 환경, 다시 말해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바인가르텐의 경우, 고층주택단지에서 이제껏 문제시되었던 이웃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결여, 여가서비스 시설·문화서비스 부족, 무엇보다도 주민의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이 그 이유였다.

물론 고층주택단지 자체가 독일사회 내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13</sup> 프라이부르크에서 바인가르텐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집합주택단지인 란트바쎄 지구나 비쇼프스룬데 지구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은 거의 없다. 또 1995년에 바인가르텐 동쪽에 인접한 지구에 마지막 대형주택단지라 할 수 있는 리젤펠트(Rieselfeld)가 지어졌지만, 바인가르텐의 교훈을 살려 계획된 이 대규모단지는 오히려 이미지가 좋다.<sup>14</sup>

한편 2012년에 바인가르텐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22층의 최고층 주거동이 재건축되었다. 포럼 바인가르텐의 주선으로 건축가와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재건축은 주민들의 광열비를 줄일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 공법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을 지향하였다. 또 세대 구성원수의 감소가 현저한 고령자용 세대의 바닥면적 축소, 방수의 감축 등을 통한 콤팩트화가 이루어진 결과 입주세대수도 늘어났다. 즉 주민과 커뮤니티의 상황에 맞춰 주거형태를 바꾸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Badische Zeitung.de, 2008/08/11].<sup>15</sup>

지금까지 민속학에서는 커뮤니티 연구(마을 연구)와 거주문화 연구가 별개의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거주라는 사적 영역 안쪽의 일상세계와 커뮤니티라는 공적이면서 주택의 바깥쪽 일상세계는 항상 교차하고 서로의 일상생활을 규정짓고 있다. 고층주택단지라는 토포스(topos)는 바로 현대의 이러한 일상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 注

- 1 바인가르텐의 쇼핑센터(Einkaufszentrum)는 1974년에 문을 열었다. 1998년 당시에는 저가상품을 파는 마트와 약간 고가의 상품을 파는 마트가 함께 입점해 있었다. 두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상이하았음은 물론이다.
- 2 사회주택(Soziale Wohnung)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다 넓은 사회계층에 주거를 공급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을 진행하였다.
- 3 바인가르텐 서쪽 지구는 2006년에 프라이부르크 시로부터 사회도시(Soziale Stadt) 사업에 지정되어 개축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졌다 [http://www.freiburg.de/pb/Lde/344685.html].
- 4 예를 들자면, Wiegmann, G.(Hg.) Wandel der Alltagskultur. Aufgaben und neue Ansätze. Münster, 1977, Mohemann, G. Wohnkultur städtischer und ländlicher Sozialgruppen im 19. Jahrhundert: Das Herzogtum Braunschweig als Beispiel. In: Teuteberg 1985. 87-144. 등이 있다.
- 5 민속학, 문화인류학에서는 '거주' 전체를 주문화로 파악하지만, 질버만 등 독일의 사회학 연구에서는 문화를 표현형식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사회개념과 구별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6 앙케이트 질문항목 자체가 독일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거주'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 7 '슈투베'(Stube)란 거실에 해당하는 독일어 'Wohnzimmer'보다 전통적인 낱앙스가 담긴 방을 뜻하는 단어다. 특히 농촌사회에서의 슈투베는 난방(취사장과 같은 오븐으로 하는 난방)이 되고 거주자들이 모여 가사 등의 일을 하는 다기능 방이었다. 예를 들어 베짜는 방(Spinnstube)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 8 왕이 지적인 바와 같이 주생활은 원래 사적인 일상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경향이 현재해질수록 연구자가 그 곳에 있기 힘들어진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王 2014:76].
- 9 WG는 'Wohngemeinschaft'의 줄임말인데, 196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등장한 거주형식이다. 본래의 가족용 주거 혹은

- 맨션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임대하여 지금은 셰어 하우스에 가깝다.
- 10 독일민속학 역사상 이렇게 전후에 만들어진 이주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우징거 등 튀빙겐 대학교의 프로젝트 「새로운 이주단지」(Neuesiedlung)였다. 주로 귀환자나 ‘고향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이러한 단지에 대한 연구는 독일민속학에서 거주 연구라기보다는 촌락연구·커뮤니티연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Hugger 1989:219].
  - 11 어떤 상태를 편안하다고 느끼는가, 또 어떤 거주공간의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할 때가 편안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거주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인 동시에 문화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슈미트·라우바는 주거공간을 포함한 ‘편안함’ (Gemütlichkeit)에 대해 문화적인 차원에서 논한 바 있다 [Schmidt-Lauber 2003].
  - 12 입주 시작 후 2년 동안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하여 150명이 전출했다 [Scherfling 1994:61]. 1972년 주민 의식조사에서도 바인가르텐 동쪽지구 주민의 43.7%가 가능하면 이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Huber-Sheik 1996:31].
  - 13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조성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점차 선호받는 주거공간이 된 한국의 경우 [南 2014:57-58]와 독일의 경우는 그 변화과정이 상이하다고 보인다. 전후 독일의 구동독에서는 기능성·비용을 중시하여 조성된 패널 공법에 의한 집합주택단지나 슬립가로 변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유력했지만 [Richter 2008:54], 이러한 시선이 주거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4 리젤펠트에서는 각 거주동을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짓고 에너지절약 주택공법인 패시브 하우스가 도입되는 등 계획 당시부터 현대 독일의 이상적 모습의 하나인 친환경 이미지가 더해져 있었다.
  - 15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시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소개되어 있다. [http://www.badische-zeitung.de/freiburg/hochhaus-wird-im-passivhaus-standard-saniert-4198129.html].
  - 16 물러의 『그린델 고층주택: 단지생활의 영상민족지적 접근』(일본어판 DVD,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소)은 거실에서의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주택단지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영상민족지를 시도한 성과물이다. 이러한 방법도 주거 연구와 커뮤니티 연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岩本通弥 2014 「“当たり前”と“生活疑問”と“日常”」 『日常と文化』 1 [이와모토 미치야/김현정 역. 2014. 「‘당연,’ ‘생활의문,’ ‘일상’」 『일상과 문화』 1]
- 南根祐/中村和代 2014 「ソウル高層住宅の展開とアパートの暮し」 『日常と文化』 1 [남근우. 2014. 「서울 고층집합주택의 전개와 아파트 살림살이」 『일상과 문화』 1]
- パウジンガー、ヘルマン/ブラウン、マルクス/シューヴェート、ヘルベルト/河野眞訳・解説 1991~3 「新しい移住団地 -東ヨーロッパからのドイツ人引揚民等の西ドイツ社会への定着にかんするルートヴィヒ・ウーラント研究所による民俗学・社会学調査(1)~(4)」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紀要』 94、96、98、99号
- ミュラー、マイケ 2013 『グリーンデル高層住宅: 団地暮らしの映像民族誌的接近』 日本語版DVD、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
- 王傑文 2014 「北京市高層集合住宅の高層集合住宅の暮しと生活世界の変容」 『日常と文化』 1 [왕 지에원/이종미 역. 2014. 「‘당연함’에 대한 재조명」 『일상과 문화』 1]
- Amf für Bürgerservice und Informationsverarbeitung der Stadt Freiburg im Breisgau(Hg.). 2014 Beiträge zur Statistik der Stadt Freiburg. Statistisches Jahrbuch 2014. (https://www.freiburg.de/pb/site/Freiburg/get/776613/statistik\_veroeffentlichungen\_Jahrbuch\_2014-NIEDRIG.pdf#search=statistisches+Jahrbuch+2014+freiburg+im+breisgau)

- Baumhauer, Joachim Friedrich. 1988. Hausforschung. In: Brednich, R.W. Grundriss der Volkskunde. Dieter-Reimer, 95-116.
- Bürgerverein Freiburg-Weingarten e.V.(Hrsg.). 1997. 25 Jahre Bürgerverein in Weingarten. 30 Jahre Stadtteil.
- Flagge, Ingeborg (Hrsg.) Geschichte des Wohnens. Bd.5.1945 bis heute: Aufbau,Neubau, Umbau. Deutsche Verlags-Anstalt.
- Gießler, Anne. 2001.Was war los in Freiburg 1950-2000. Alan Sutton.
- Harth, Annette & Gitta Scheller. 2012.Das Wohnerlebnis in Deutschland. Eine Wiederholungsstudie nach 20 Jahren. Springer.
- Huber-Sheik, Kartin. 1996. Sozialer Brennpunkt : Sozialstruktur und Sanierung in Freiburger Stadtteil.Hartung-Gorre. Forum Weingarten. 2015. Sozial Situation und Entwicklung in Weingarten. eine Einschätzung.(<http://forum-weingarten.de/images/pdf/Soziale-Situation-in-Weingarten.pdf>)
- Hugger, Paul. 1988. Volkskundliche Gemeinde- und Stadtteilerforschung. In: Brednich, R.W. Grundriss der Volkskunde. Dieter-Reimer,215-234.
- Mohrmann, Ruth-E. 1988. Wohnen und Wirtschaften. In: Brednich, R.W. Grundriss der Volkskunde. Dietrich-Reiner, 117-136.
- Richter, Peter. 2008. Deutsches Haus. Goldmann.
- Scherfing, Karlheinz. 1994. Freiburg aus der Luft. Unterwegs im Stadtteil.Badische Zeitung.
- Schildt, Axel & Arnold Sywottek(Hrsg.). 1988. Massenwohnung und Eigenheim.Campus.
- Schmidt-Lauber, Brigitta 2003. Gemütlichkeit. Eine kulturwissenschaftliche Annäherung. Campus.
- Silbermann, Alphons 1963 Vom Wohnen der Deutschen. Westdeutscher Verlag.
- Teuteberg, Hans Jürgen (Hrsg.).1985. Homo habitans. Zur Sozialgeschichte des ländlichen und städtischen Wohnens in der Neuzeit. F. Copenrath.
- Teuteberg, Hans Jürgen.1985. Brtrachtungen zu einer Geschichte des Wohnen.In: Teuteberg, H. J. Homo habitans.F. Copenrath,
- Teuteberg, Hans J., C.Wischermann. 1985. Wohnalltag in Deutschland 1850-1914. F.Copenrath.
- Tränkle, Margret.1999. Neue Wohnhorizonte. Wohnalltag und Haushalt seit 1945 in der Bundesrepublik. In: Flagge, I.(Hrsg.) Geschichte des Wohnens. Bd.5.Deutsch Verlag-Anstalt:687-806.
- Uhlendahl, Thomas(Hrsg.) 2014. Das Image von Freiburg-Weingarten: Innen- und Außensicht des Stadtteils im Kontext des Programms ‚Soziale Stadt‘ Abschlussbericht. Institut für Umweltsozialwissenschaften und Geographie Fakultät für Umwelt und Natürliche Ressourcen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im Br.
- Wildfeuer, Bianca. 2012. Romantisches. Zut Bedeutung einer Gefühlswertigkeit am Beispiel heutiger Wohnkultur. Waxmann.